

LG전선(주)

**印度 통신인프라 구축 참여
1천만불 규모 OPGW 시스템
턴키 수주 등**

LG전선(대표 권문구 www.lgcable.co.kr)이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인도의 국책사업인 통신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참여한다.

LG전선은 최근 인도 전력청(PGCIL: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Ltd.)이 실시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동부지역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입찰에서 후루카와, 시멘스, 피렐리 등의 세계적 경쟁사들을 제치고 턴키(Turn-Key) 프로젝트로 수주했다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LG전선은 인도 동부의 오리사주(Orissa)와 서벵갈주(West Bengal)에서 총연장 900km의 구간에 OPGW(광섬유 복합가공지선) 선로를 구축하게 되며 특히, 최첨단 시공기술인 Live-Line공법(활선공법: 철탑에 설치된 기존 선로의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탑 꼭대기에 OPGW 선로를 설치하는 특수공법)을 선보인다.

지난 달 중순부터 시공에 들어가 내년 말에 완공될 이번 공사의 수주로 인해 LG전선은 올해 인도에서 실시될 향후 2~3개 프로젝트의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기간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위축에 따라 LG전선은 작년 초부터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중남미 시장을 집중 공략, 작년 12월 중미의 벨리즈 공화국에서도 1000만불 규모의 OPGW 시스템을 턴키로 수주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 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OPGW 시스템 구축 및 220kV급 초고압 지중선로 공사에서 작년 수주액의 2배에 육박하는 총 8000만불 수주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단품수출 위주의 브라질/우루과이/칠레 등 중남미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북미시장으로 진출하는 한편, 인도/벨리즈/싱가폴/바레인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지 프로젝트 지사를 수출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턴키 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공업(주)

**담수플랜트 건설
세계 최단 기록에 도전**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1위인 한국중공업(사장 尹永錫)이 담수 플랜트 건설공기를 지난 해 38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인데 이어, 또다시 12개월로 단축하는 '세계 최단 기록'에 도전한다.

한중은 중량 3,600톤의 담수 플랜트용 초대형 증기발생기(Evaporator)와 중량 1,100톤의 보일러를 6개월만에 제작에 성공, 지난 2월 5일 창원공장 자체부두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현지로 출하했다.

이로써 한중은 선행 프로젝트보다 공기가 무려 16개월이나 단축된 12개월만에 준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출하된 증발기는 한중이 지난해 7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수전력청(Abu Dhabi Water & Electricity Authority, ADWEA)으로부터 5억달러에 수주한 움알나르(Umm Al Nar) 담수플랜트용 증발기 5기 중 1차분으로 길이 87m, 폭 27m, 높이 17m, 중량 3,600톤에 달하는 초대형 설비이다.

한중 관계자는 "증발기와 보일러를 창원공장에서 완전 조립상태로 제작 출하한 것과 설계 기간 단축, 자재 조기 구매, 현지 건설인력 조기 투입 등으로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설비들은 1만 마력 규모의 예인선에 의해 약 40일간의 해상 운송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현지에 도착될 예정이며, 현재 창원공장에서 제작중인 나머지 증발기도 오는 6월까지 전량 현지로 출하될 예정이다.

한중이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 도급방식으로 수행하

는 이 프로젝트는 증발기 5기(일산 하루 6250만 갤런)와 보일러 5기가 설치되며, 단위 생산 용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움알나르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 건설공사가 성공적으로 준공되면 매일 70만명 이상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중은 지난 '79년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 파라산(Farasan) 지역에 담수공장을 건설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알쇼아이바(Al-Shoaiiba)와 아랍에미리트 알따월라(Al-Taweelah), 쿠웨이트 아주즈르(Az-Zour) 등 대형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세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에서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의 공급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제6대 신임회장에 현대중공업(주) 조총휘 사장 취임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2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임을 표명한 유재환 회장의 후임으로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인 조총휘 사장을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진흥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앞으로 국내 증전기기 산업계를 이끌어 나갈 신임 조총휘 회장은 1976년 현대중공업(주)에 입사하여 런던지사장, 조선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 1999년부터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조총휘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국내 경기현실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버리고 우리 전기업계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마인드로 여러 분야에 걸쳐 회원사간의 상호협력체제를 조성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 진흥회가 회원사와 함께 전기산업의 2천년대 선도산업화에 선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흥회에 대하여 회원사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취임인사를 하였다.

또한 진흥회에서는 총회에서 IMF 경제위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기기업계의 권익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유재환 전임회장에게 회원사 명의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또한 진흥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앞으로도 전기기업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였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01년도 산업기

술개발자금 및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지원일정을 확정하고 해당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산업기술개발자금은 전기부문 시제품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올해 지원규모는 60억원으로 융자금리 연 6.75%(변동금리),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고,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과제당 30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진흥회에서는 3월 31일까지 1차 접수를 마감한다.

산업기반기금은 제조업체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지원금액의 40%까지는 운전자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지원규모는 전기분야 신기술보급부문이 20억원, 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은 전기부품 등 7개 산업분야에 53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금리가 연 6.0%,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포함)이며,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과제당 30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진흥회에서는 신기술 보급부문은 3월 31일까지, 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은 3월 6일까지 1차 접수를 마감한다.

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소식망(진흥회소식)”을 참조하고, 신청서식은 “자료실”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전KDN(주)

**'웹 에이전시' 벤처드림팀
사내벤처 출범**

한 국전력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전KDN(대표 정연동)은 웹 에이전시(인터넷 사이트 구축용 유무선 통합 솔루션 기반) 사업을 위한 사내벤처를 본격 출범시켰다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국내벤처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대외모집 방식으로 사내벤처 사업(벤처드림팀)을 추진해 왔으며 총 87개팀이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장타성 팀장을 비롯한 5명의 팀원은 정식직원으로 특별 채용되면서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특히 '한전KDN 벤처플라자'에 무상으로 입주해 한전KDN으로부터 기술, 자금, 경영,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사업성과에 따라 높은 성과급도 받는다.

LG산전(주)

**베트남에서 변전소 기자재
프로젝트 5백만弗 수주**

LG산전은 최근 베트남 중부 전력청(CPPMB: Central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이 발주한 '빈닌(Vinh Linh) 변전소 외

6개 변전소 기자재 프로젝트」를 수주, 5백만弗 규모의 초고압기와 배전반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ALSTOM社, 스웨덴 ABB社 등 세계 우수 중전기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이번 전력청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한 LG산전은 베트남 중부지역 변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초고압기와 배전반 설비를 올해 7월까지 공급하게 된다.

베트남에 전력기와 설비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을 두고 있는 동사는 연간 7천만弗 규모의 베트남 전력설비 시장에서 지난 해 약 1100만弗 규모의 매출실적을 올려 프랑스 알스톰社(시장점유율 17%)에 이어 시장점유율(14.5%) 2위를 기록했다.

올해 16%의 시장점유율을 예상하고 있는 동사는 내년에는 베트남 전력설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확보한다는 전략하에 베트남에서 신제품 설명회와 고객 초청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해 동남아 전력설비 시장에서 약 2500만弗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LG산전은 올해 3천만弗 이상의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수력·화력 발전소에서 전력 사고시 전력계통 및 부하기기를 보호하는 제품인 저압 배전반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저압 배전반은 한국 전기연구소에서 실시한 성능시험에

합격, 국제전기격인 IEC60947-2 규격을 획득함으로써 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독자 개발 제품인 기중(氣中)차단기(브랜드명: Ace-MEC)를 채택한 이 저압 배전반은 기존 제품과 달리 트립릴레이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어 정격전류 설정이 정확하고 부하상태의 확인이 가능하며 정격전류 조정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다.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원, 우수 공기업 경영자 표창

한 국원자력연료(주) 김덕지 사장은 지난 2월 7일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공기업 경영자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81년부터 매년 자체감사 우수기관과 우수직원을 선정 포상해 왔으며 올해는 우수 공기업 경영자부문을 신설, 경영실적 개선과 노사화합에 공을 세운 공기업 경영자 4명을 처음으로 표창했다.

김덕지 사장의 이번 수상에는 지난 해 6월 취임이래 무여비 출장, 자가운전, 24시간 근무, 연봉 자진 반납 등 솔선수범하는 경영방식으로 새로운 노사화합상을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김사장은 특히 지난 해 8월, 3년간 끌어온 노사간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이끌어냄으로써 만성적 노사갈등을 해소,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또 부품업체 다변화 및 저리자금 체 차입 등을 통해 140억원의 비용절감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주)케이디파워

"Challenge 2001" 선포

전 력분야 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www.kdpower.co.kr, 대표이사 박기주)는 2001년 강남구 포이동에 본사사옥을 마련하여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2월 5일부터 본격적인 강남시대에 서막을 열었다. 지난 해에는 창립 10년만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번지에 대지 8,309m², 건평 4,315m²의 대형공장 2동과 사무동을 완공하여 6개 협력사와 공동으로 "Digital Technopia" 건설을 선도하기 위한 새 보금자리인 "Dream Factory"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로써 케이디파워는 지난 '90년 용산전자상가에서 등지를 튼 후 경기도 광주시대를 지나 서울 한복판에 당당히 입성하는 벤처기업의 표본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Digital · Internet · Networking을 기반으로 "지능형 i 수배전반, 지능형 i MCC, iKEN(Web 기반 실시간 전기안전 관리)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2001년 사업계획도 발표하였다.

박사장은 2001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 매출액 530억, 영업이익 80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250%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이제 케이디파워의 신 제품군들이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표준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담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소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선언식을 통하여 "한국의 표준, 세계의 표준"을 열고 "한국경제의 5%를 분명히 책임지기 위해" 전 종업원들은 가일층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중공업(주)

세계최대 深海 FPSO 완공

現代重工業(대표: 趙忠彙)이 세계최대 "바다 위의 원유공장"인 FPSO(부유식 원유생산 저장선)를 만들었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2월 13일 울산 해양공장서 '98년에 프랑스 MPG사로부터 총 3억달러에 수수한 34만 3천톤(DWT)급 FPSO(지라솔 FPSO)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이 피 루(J.P.REAU) 駐韓 프랑스 대사와 現代重工業 趙忠彙 사장을 비롯해 프랑스 MPG社와 컨소시엄社인 토탈피나엘프(Total-

finaelf), 엑슨(EXXON), BP 아모코(BP Amoco), 스타트오일(Statoil), 노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라솔 FPSO는 길이 3백m, 폭 60m, 높이 31m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건조된 FPSO 중 가장 크고 1,400m의 심해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선박은 원유정제, 가스압축, 원유 하역, 해수주입, 발전, 제어, 거주(140명 기거 가능) 설비를 갖춰 원유채굴에서 하역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 선박은 하루 2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200만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現代重工業은 이 FPSO를 3월말까지 마무리 작업한 뒤, 6월말에 서아프리카 앙골라 수도 루안다 북서쪽 200미터 지점 수심 1400미터의 지라솔유전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라솔 FPSO건조로 엑슨, BP, 쉘 등 세계 석유메이저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이들이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現代重工業은 올해 해양설비분야에서 지난 해보다 38% 늘어난 12억달러의 수주를 목표로 이를 위해 아프리카 및 북미지역의 FPSO 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하는 한편, 기본설계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형태의 신규 해양설비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